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헤드라인뉴스 ‘マイクロ 클러스터 전략’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산업·경제 경기부양책 및 가계부채 상환유예 제도 시행

사회·복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예술가, NGO 등 지원
실업자, 중소상공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속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호품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지원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マイクロ クラスター 選択’으로 코로나19에 대응

미국 뉴욕州 / 사회·복지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라 각 지역을 레드존(Red Zone), 오렌지존(Orange Zone),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규제를 시행하는 ‘マイクロ クラスター (Microcluster) 방식’의 대응 시행. 코로나19 확진율과 확진자 증가율, 병원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모임, 사업체 및 학교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를 제시

배경

- 미국 뉴욕주는 12월 16일 기준 총 81만 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 12월 16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9,998명, 신규 사망자는 95명으로 집계
- 뉴욕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라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각기 서로 다른 규제를 시행하는 ‘マイクロ クラスター(Microcluster) 방식’ 도입

주요 내용

- 마이크로 클러스터 방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특정하여 특별 규제로 관리하는 방식
 - 각 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의 확진자 증가율과 병원 수용능력 등을 바탕으로 주에서 지정
- 마이크로 클러스터 설정기준
 - 주는 확진율과 확진자 증가율, 병원 수용능력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마이크로 클러스터 설정기준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12월 10일 개정
 - 새롭게 개정된 설정기준은 병원 수용능력에 초점을 맞춰, 병원 수용인원 비율을 8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지침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산업체 지침 조정. 12월 14일부터 뉴욕市 소재 음식점 내부 취식은 중단. 오렌지존(Orange Zone)의 체육관과 미용실은 영업 가능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현황은 홈페이지(<http://nyc.gov/covidzone>)에서 확인 가능
- 레드존(Red Zone) 설정기준 및 규제 내용
 - 설정기준
 - 해당 지역의 병원에 예정된 위급하지 않은 수술을 취소하고, 입원 수용인원을 50% 늘린 후에도 향후 21일 안에 총 병원 수용인원의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규제 내용
 - 모임: 모든 비(非)필수적인 모임 금지
 - 교회: 최대 수용인원의 25% 및 10명 이하 허용
 - 사업체: 모든 비(非)필수 사업체는 폐쇄
 - 음식점: 포장 및 배달만 가능
 - 학교: 모든 학교는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
 - 12월 16일 현재 지정된 레드존은 없음
- 오렌지존(Orange Zone) 설정기준 및 규제 내용
 - 설정기준
 - 해당 지역의 7일 평균 확진율이 10일 이상 4%를 넘고, 병원 수용인원의 85%에 도달한 지역 또는 뉴욕주 보건부가 지정한 ‘급속한 감염률 상승을 보이는 지역’
 - 규제 내용
 - 모임: 실내외 모두 10명 이하 허용
 - 교회: 최대 수용인원의 33% 및 25명 이하 허용
 - 사업체: 체육관, 헬스장 등은 최대 수용인원의 25% 이하로 운영 가능. 미용실 등은 운영 가능하나, 종업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음식점: 음식점 내부 취식은 금지. 테이블당 4명 이하의 실외 식사는 가능.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 학교: 모든 학교는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 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규모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학교는 운영 가능
 - 12월 16일 현재 총 7개 지역이 오렌지존으로 지정
- 옐로우존(Yellow Zone) 설정기준 및 규제 내용
 - 설정기준
 - 해당 지역의 7일 평균 확진율이 10일 이상 3%를 넘기고, 최근 7일간 해당 지역의 총인구 수 대비 병원 입원율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

- 규제 내용
 - 모임: 주거지에서는 실내외 모두 10명 이하 허용, 비(非)주거지에서는 실내외 모두 25명 이하 허용
 - 교회: 최대 수용인원의 50% 이하 허용
 - 사업체: 영업 가능
 - 음식점: 실내외 모두 취식 가능. 테이블당 4명까지 식사 가능.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 학교: 운영 가능. 모든 학생과 교사의 20%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12월 16일 현재 총 28개 지역이 옐로우존으로 지정

<https://forward.ny.gov/cluster-action-initiative>

<https://forward.ny.gov/micro-cluster-strategy>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경기부양책 및 가계부채 상환유예 제도 시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산업·경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인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2,800만 유로(약 377억 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7,8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핵심 경제기반인 문화산업 분야에 1,700만 유로(약 223억 원)를 추가 지원. 또한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2020년 암스테르담 광역권(MRA: Metropool Regio Amsterdam)¹⁾의 경제는 전년도보다 6~7% 침체
 - 이는 네덜란드 전국 평균인 5%보다 높은 수치로, 이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문화산업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가 2차 유행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외에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그동안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시민, 기업 등에 임금보전 및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음²⁾
 - 암스테르담市 역시 위기를 겪은 사업자 및 시민의 세금 감면에 1,400만 유로(약 188억 원)를 집행
-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하게 되고,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
 -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가계부채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침체보다 뒤늦게, 몇 년 뒤에야 가시화되었음³⁾
 - 가계부채 관련 상담 및 경제적 부조 신청 접수부터 채무조정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1년 반이 소요되며, 그 사이 이자 및 연체액은 계속 불어남

1) 암스테르담 광역 교통권(Vervoerregio Amsterdam)을 기반으로 암스테르담市가 속해있는 노르트홀란드(Noordholland)주와 플레보란트(Flevoland)주 권역 내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협력체

2) 1차(3월~5월), 2차(6월~9월), 3차(10월~12월) 기간에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복수 지급

3)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관계 부처에 법률 상담 및 경제적 부조를 신청하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 현재 25,000여 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체액은 2만 6천 유로(약 3,502만 원)
 -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5천여 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 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려야 함

경제회복정책의 주요 내용

-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해 2,800만 유로(약 377억 원)의 예산을 편성
 - 市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관광업을 회생시키고 추후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장객(business visitor) 및 국제 컨퍼런스 유치 등의 대안을 모색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들이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보조금 제공
 - 코로나19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건강 및 의료, 지속가능성(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연구환경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분야 고용창출에 7,800만 유로(약 1,050억 원)를 투자
 - 집중 투자 대상은 건물 수리, 열 제어, 태양에너지, 주택,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등 6개 분야
 -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점차 대체에너지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핵심 의제
 - 관련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단열 및 방음 공사 등 전문 기술인의 일자리 3,800개를 발굴하고, 민간부문에서 27억 유로(약 3조 6천억 원) 투자 유치
 -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과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
 - 추가적으로 인턴십 기회를 마련해 청년층의 기술훈련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
- 문화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1,700만 유로(약 223억 원) 추가 지원⁴⁾
 - 암스테르담市가 집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금 5,000만 유로(약 673억 원) 중 1,700만 유로를 62개 기관(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 분배
 - 이 중 1,130만 유로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570만 유로는 2021년 초에 지급

4) 중앙정부가 지원한 1,570만 유로(약 211억 원)에 추가적으로 암스테르담市가 지원

취약계층 지원의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의 연체액이 불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
 - 일시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독촉 우편 등이 발송되지 않음
 - 이를 위해 市는 (공공)주택협동조합,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징수업체, 통신서비스 업체 등과 동의서를 체결
 - 5,000유로(약 673만 원) 미만의 부채는 시립은행(Kredietbank)⁵⁾에서 일시에 대출받아 상환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립은행에 3% 이율로 분할 납부 가능
 - 이를 통해 별금 및 정별적 연체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이번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네덜란드 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와의 협의를 통해 네덜란드 전역에 적용
 - 2021년 1월부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징수업체,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 등은 독촉 우편 발송 후 30일~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市가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 등 가능한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

<https://www.metropoolregioamsterdam.nl/economische-verkenningen-mra-grote-terugval-maar-uitgangsspositie-mra-onverminderd-sterk/>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herstelplan-cultuursector/>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herstel-economie/>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wethouder/marieke-doorninck/persberichten/78-miljoen-duurzame-werkgelegenheid/>

[https://www.parool.nl/amsterdam/gemeente-voert-pauzeknop-in-voor-mensen-met-schulden-b2e7a6f3/](https://www.parool.nl/amsterdam/gemeente-voert-pauzeknop-in-voor-amsterdammers-met-schulden-b2e7a6f3/)

<https://nos.nl/artikel/2353959-amsterdam-voert-pauzeknop-in-voor-mensen-met-schulden.html>

<https://nos.nl/artikel/2355963-betaalachterstanden-sneller-gemeld-bij-gemeenten-in-strijd-tegen-schulden.html>

장 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5) 소득이 낮아 일반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 예술가, NGO 등 지원

미국 오스틴市 / 사회·복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Austin)市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문화시설 및 예술가, 세입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

배경

- 오스틴市가 속한 텍사스州는 12월 10일 기준 총 139만 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 텍사스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위이며,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텍사스주의 주도(州都)인 오스틴 지역(Austin-Travis County)에서도 12월 10일 기준 4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 중 499명이 사망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
 - 텍사스주에서 3월 중순에서 12월 10일까지 실업수당(unemployment relief)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 명
 - 실업률은 10월 현재 6.9%로, 2019년 같은 시기의 3.5%에 비해 약 두 배 증가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오스틴市에서도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
 - 市는 경제적 지원제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 오스틴 市의회는 5월 7일 1,000만 달러(약 11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Austin Small Business Relief Grant)을 승인. 市는 또한 6월 4일 추가적으로 650만 달러(약 71억 원)의 지원을 확정
 - 市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만 달러(약 4천만 원)를 지원
 - 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

- 7월 24일까지 총 2,526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이 중 35%인 885개 사업장이 총 1,620만 달러(약 178억 원)를 지원받음
- 신청 업체는 음식점(512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예술 관련 사업장(298건), 기타 서비스업 관련 업체(282건), 미용 관련 사업체(269건), 부동산 관련 업체(218건), 건강관리 및 스포츠 관련 사업장(183건) 순임. 이 중 20%는 완전히 문을 닫았으며, 69%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과 같이 운영하는 곳은 11%에 불과
- ‘Austin Economic Injury Bridge Loan Program’ 운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월급 지급,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3.75%의 이자로 대출
 - 7월 15일까지 총 1,11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70건에 대해 지원
 - 총 230만 달러(약 25억 원)를 지원하여 건당 평균 32,900달러(약 3,600만 원)를 지급
- 보육시설 지원
 - 市의회는 10월 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1,500만 달러(약 165억 원) 규모의 ‘Save Austin’s Vital Economic Sectors(SAVES) Fund’ 조성을 결정. 이 중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보육시설 지원에 사용
 - 코로나19로 아동 수가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운 보육기관에 일회성으로 지원
 - 5세 이하 어린이 보육시설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은 지원 가능
 - 1개 보육시설당 최대 6만 달러(약 6천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 월급, 임대료, 운영비, 기타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
 - 12월 10일 기준 120개 보육시설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72개 시설이 105만 달러(약 11억 원)를 지원받음
 - NGO 지원사업인 ‘Austin Non-Profit Relief Grant’ 운영
 - 市의회는 5월 7일 NGO를 대상으로 6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6월 4일에는 35만 달러(약 4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9월 18일까지 총 353개 기관이 신청하여 이 중 250개 기관이 총 360만 달러(약 39억 원)를 지원받음
 - 1개 기관당 평균 16,400달러(약 1,800만 원)를 지원받음
 - 신청 기관 중 코로나19 이후 이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9%에 불과했으며, 66%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15%는 완전히 문을 닫음

- 예술가 및 문화시설 지원사업
 - 음악공연장 보전기금(Austin Life Music Venue Preservation Fund) 운영
 - 12월 3일 SAVES 펀드 중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음악공연장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 市에 위치한 음악공연장 중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곳은 신청 가능
 - 1단계 긴급 자금 지원으로 1개 공연장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만 원)를 받을 수 있음. 2단계 지원사업에서는 1개 공연장당 한 달에 최대 4만 달러(약 4천만 원)씩 최대 14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문화시설 긴급 구호 프로그램 ‘Austin Creative Space Disaster Relief Program’ 운영
 - 市는 4월 23일 개인 예술가, 극장,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예술 관련 NGO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지원을 결정
 - 8월 27일까지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32건에 대해 총 98만 8천 달러(약 10억 원)를 지원
 - 예술가 지원 자금 ‘Austin Creative Worker Relief Grant’ 운영
 - 市의회는 6월 4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위해 350만 달러(약 40억 원)의 지원을 결정
 - 신청자 1명당 최대 2천 달러(약 22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및 공과금 지급,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10월 16일까지 총 5,50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866명에게 총 330만 달러(약 33억 원)를 지원
 - 음악가 재난 구호 자금 ‘Austin Music Disaster Relief Fund’ 운영
 - 市의회는 4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음악가들을 위해 150만 달러(약 16억 원)의 지원을 결정
 - 신청자 1명당 최대 1,000달러(약 110만 원)를 지원
-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The Relief of Emergency Needs for Tenants Assistance Program) 시행
 -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가구소득이 지역중앙가구소득(Median Family Income, MFI)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지원 대상. 지역중앙가구소득은 지역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말함
 - 신청 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지원
 - 市는 5월 120만 달러(약 13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지원 완료. 7월에는 1,290만 달러(약 14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할당

- 12월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1,156달러(약 100억 원)를 지원
 -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 원)를 지급
- 市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는 온라인에 각 지원프로그램의 경쟁률, 지원규모, 지원자 거주지 위치, 인종, 연령 등을 공개
 - 市의 재정지원책뿐만 아니라 州정부와 연방정부, 민간의 지원프로그램도 소개

<https://www.austintexas.gov/economicrecovery>

<https://austintexas.gov/page/covid-19-dashboards>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unemployment/?_ga=2.179441698.769395843.1607630403-1289983181.1607630403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small-business-relief-grant>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creative-space-disaster-relief-program>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creative-worker-relief-grant>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music-disaster-relief-fund>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non-profit-relief-grant>

<http://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economic-injury-bridge-loan-program#:~:text=The%20Austin%20Economic%20Injury%20Bridge%20Loan%20Program%20provides%20loans%20up,rent%2C%20payroll%2C%20and%20debt.&text=The%20loan%20is%20intended%20to,a%20business%20secures%20recovery%20resources.>

<https://www.kvue.com/article/news/health/coronavirus/austin-rent-assistance-rent20-program-texas-help-covid19-coronavirus/269-09f2a333-86a0-49ea-ae8c-9d9f83c035ab>

이경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실업자, 중소상공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속 지원

캐나다 / 사회·복지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각종 취약계층 수당 지급 등 한시적인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보완 또는 기간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 중

배경

-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지원제도가 종료되면서 지원 제도 연장 및 신규정책 시행의 필요성 제기
 - 1차 유행 시 시행한 재정지원책 종료
 - 4개월간 실업자에게 월 2,000달러(약 1,700만 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조치를 1회 연장 후 10월 말에 종료
 - 긴급 부가가치세 환급 1회 지급으로 종료
 - 아동수당 추가 1회 지급으로 종료
 - 고용주 지원대책을 통해 3개월간 시행했던 임시 급여 보조금 제도 종료
 - 한시적 월세 보조금 정책 종료에 따라 州정부, 市정부, 업계의 우려 제기
 - 캐나다 긴급 상가임대료 보조금(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제도라고 명명된 한시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를 4등분하여 연방정부, 州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9월에 만료되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불안감을 호소
 - 동절기 노숙자 주거문제 대두
 - 시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도시 노숙자 텐트촌에 철거 명령을 내림
 - 노숙자 집단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전문제 대두

경제지원책의 주요 내용

- 기존 실업급여제도 요건 완화
 - ‘긴급대응 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연장

- 실업급여 대상자의 근로시간 요건을 기존 최근 1년간 3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지원 폭 확대
- 거주지별 실업률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기준을 일률적으로 13.1% 이상 실업률의 경우로 확대
- 변경된 규정은 26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저 주당 급여는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400달러(약 34만 원) 이상으로 상향
- 출산/육아휴직 대상자에게 1년간 주당 500달러(약 43만 원)를 지급하며, 추가로 배우자 할당분에 해당하는 300달러(약 25만 원) 신청 가능
- ‘캐나다 회복 혜택(CRB, Canada Recovery Benefit)’ 정책 신설
 - 기준 간접대책의 종료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 발표
 -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최근 1년 간 5,000달러(약 4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아닌 경우 대상에 포함
 - 최대 26주까지 매주 500달러(약 43만 원)를 지급
- 월세 지원정책 보완 후 재시행
 - 한시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를 4등분하여 연방정부, 州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임대료의 최대 65%까지 지원
 - 일반 상가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도 포함
 - 보건명령에 따라 상점을 열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 동절기 노숙자 숙소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 앨버타州 에드먼턴市는 600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약 24곳의 호텔과 논의
 - 앨버타 州정부는 州 내 대표적인 대도시인 에드먼턴市와 캘거리市에 응급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480만 달러(약 41억 원)를 제공하고, 쉼터 확장 및 격리 쉼터 확보를 위해 추가로 860만 달러(약 73억 원)를 전달
 - 이들 대도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동절기 동안 노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간 최대 400명, 야간 최대 300명을 수용
- 연방정부의 ‘지역 구제 및 회복 기금(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에 6억 달러(약 5,154억 원) 추가 투입
 - 지난 5월에 조성하기 시작한 이 기금은 현재 15억 달러(약 1조 2,884억 원) 규모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을 돋기 위한 자금으로, 다른 지원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사업자가 지원 대상

-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현 소재지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연방정부의 다른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야 함
-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연장
 - 추가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 촉진을 목표로 함
 - 기준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의 75%, 주당 최대 847달러(약 72만 원)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을 65%로 인하하여 12월까지 연장

정책 평가

- 취약계층 지원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존재
 -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캐나다의 2021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9.9%로 추정해 국제통화기금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재정적자가 클 것으로 분석
 -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불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와 여당은 자체 평가
 - 반면 경제지원대책이 점차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
 - 월 2천 달러(약 171만 원) 상당의 일률적인 실업자 지원으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
 -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긴급 프로그램 폐지와 실업급여 정상화와 함께 노동자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9/government-announces-extension-of-rent-relief-for-small-businesses.html>

https://www.ic.gc.ca/eic/site/icgc.nsf/eng/h_07682.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maternity-parental.html>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benefit.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8/supporting-canadians-through-the-next-phase-of-the-economy-re-opening-increased-access-to-ei-and-recovery-benefits.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lity.html>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html>

취약계층 대상 구호품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지원

인도 데리 NCT¹⁾ / 사회·복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인도 데리 NCT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 빈곤층 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세금 감면, 저소득층 학생 대상 태블릿PC 제공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

배경

-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실업, 주거문제 등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인도 노동자의 80% 정도가 비공식 경제²⁾ 부문에 속해 있어 불안정성이 높고, 봉쇄령과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빈곤층이 급증
 - 특히 데리 NCT 지역과 같은 대도시에는 가난한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코로나19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
-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기조 아래 데리 NCT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주요 내용

- 데리 NCT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결식(缺食)을 막기 위해 기존의 무료급식소와 구호품 전달을 확대
 - 봉쇄령이 진행되던 상반기에는 235개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6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긴급전화를 개설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시행
 - 빈곤층을 위한 구호품 전달방식 변경을 추진. 식량 배급소 방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를 위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
 - 쌀, 밀가루, 설탕 등 기본 식재료를 담은 구호품을 1인당 기존 5kg에서 10kg으로 확대하였으며, 7월 기준 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중

1) 데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데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공식적인 경제 구조 밖에서 보수를 받는 가내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

- 기존에는 대상자가 식량배급 카드를 발급받아 배급소에서 식재료를 수령해왔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이동 및 출서기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
-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책도 제공
 - 봉쇄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5천 루피(약 7만 5천 원)를 지급
 - 지정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체 중인 수도요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
 -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
- 대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역 전력회사 후원을 통해 1,900개 이상의 태블릿PC를 12월 중에 무료 배포하여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
- 스포츠 분야 유망 프로선수 7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천만 루피(약 6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헬리 NCT 정부는 건강부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정책 평가

- 헬리 NCT 정부는 빈곤층과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별도 선별 하여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
 -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집중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식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



[사진 1]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제공



[사진 2] 취약계층 가구별 구호품 전달

<https://www.businessstoday.in/current/economy-politics/coronavirus-lockdown-delhi-govt-okays-doorstep-ration-delivery-scheme/story/410549.html>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covid-19-delhi-govt-extends-water-bill-waiver-scheme-till-december-end-120093000506_1.html

<https://www.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delhi-govt-to-give-rs-5000-to-each-of-auto-taxi-and-e-rickshaw-drivers-kejriwal/articleshow/74951415.cms>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govt-s-budget-prep-begins-focus-likely-on-health-care/story-TBIQ8nZaLYcBwl7rDYIVtK.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govt-to-give-tablets-to-1-900-students-for-online-classes/story-tvpAdcfvdMJh9NX7k9v6IL.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elhi-government-moots-one-time-waiver-of-penalty-on-no-payment-of-road-tax-for-private-transporters/story-DoS7lttJo3zrwPsEDG8wVN.html>

<https://www.outlookindia.com/newsscroll/mission-excellence-scheme-delhi-govt-provides-financial-aid-of-rs-439-cr-to-77-sportspersons/1975020>

<https://www.thewire.in/rights/covid-19-economy-jobs-food-security>

<https://www.thewire.in/rights/no-time-for-experimentation-food-rights-activists-on-delhis-doorstep-ration-delivery-schem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aap-government-set-to-start-doorstep-ration-delivery-in-delhi/articleshow/74200383.cms>

세계도시동향 제494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